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임형재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INK 2022, 제34차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알려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과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님, 그리고 세종학당재단 이해영 이사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학회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서강대학교 심종혁 총장님과 서강대 한국어교육원을 이끌고 계시는 조형식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34차 학술대회는 2023년의 한국어교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중언어 다중문화 시대의 교사 역량”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강현화 교수님과 인하대학교 김영순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무엇보다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건너, 다시 이렇게 대회의장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뵈지 못했던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학회 개최 소식을 듣고 불원천리 마다치 않으시고 참석해 주신 학회 고문님과 이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3년 동안 팬데믹이라는 이동과 교류의 제한과 폐쇄를 겪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동안 개념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던, 다언어 다문화 사회가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도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으로 이어지는 한류는 거침이 없이 흘러왔고, 태국·베트남·터키·인도 등 한국어교육의 세계화는 고등교육을 넘어 중등교육으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학회는 한국 언어문화교육에서 현 시대적 상황에 맞는 교사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의 출구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교사 역량의 지표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한국어교사 교육의 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계자 여러분과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시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학회 부회장님들과 연구이사님, 그리고 총무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 서 개최되는 이 학술대회가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임형재

## 환영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4차 추계학술대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임형재 회장님, 학회 회원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학자 여러분, 그리고 서강대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어언어문화교육의 대표적인 학회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34차 추계학술대회를 저희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국내외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학술대회가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강은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한국어교육원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로올라 국제대학을 설립추진하여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서강과 함께 한국어교육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에서 개최하게 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학술대회가 **‘다중언어 다중문화시대의 교사 역량’**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와 한국의 위상이 사뭇 달라진 이 시대에 두세 개 이상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경험한 학습자들에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교사의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래에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에 대해 보통은 K-pop이나 영화, 드라마 등의 인기와 수상에서 보여지는 한국문화의 성과만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서강에서 매순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학생들에게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주시는 한국어교육원 선생님들을 지켜본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이러한 관심과 열기는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학습자들의 옆에서 친절하게 소통하고 의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현장의 한국어 교사들과 체계적인 한국어언어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여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신 한국어 연구자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 역시 **‘다중언어 다중문화시대의 교사 역량’**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 한국어 교사 및 연구자들에게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임형재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제34차 추계학술대회의 성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서강대학교 총장  
심종혁

## 축 사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2022년 제34차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한국과 세계 다른 지역 간의 언어문화 대조 연구를 통해 한국 언어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보급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습니다. 이후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제는 한국 언어문화 연구 및 교육 현장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동안 학회는 한국언어·문화 연구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국제학술지로 인정받은 ‘한국언어문화학’을 출간하기도 했고, 지금은 미래의 학술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젊은 신진 연구자 발굴을 위한 ‘한국언어문화학 신진연구상’과 같은 도전적인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중언어 다중문화, 교사의 역할 고찰과 미래’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지금처럼 전세계가 초네트워크 사회로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시대에 다중언어와 문화,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수하는 교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이에 대한 창의적 의견들이 쏟아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대회를 준비하신 임형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 김성곤

##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장소원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4차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한국 언어문화의 연구와 교육의 성장과 함께했습니다. 서른네 번째 학술대회 개최를 기쁘게 생각하며,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여는 대면 학술대회 시작의 의미를 새겨봅니다. 새로운 한국어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어지러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2020년 이후, 대부분의 학술대회가 멈춰 서거나, 온라인이라는 생소한 채널에 기대 아쉬움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한류의 흐름은 거침이 없었으며, 여러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한국어 세계화의 걸음도 계속됐습니다.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한국문화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는 국어원에도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부여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세계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어원도 다가올 다중언어와 다중문화의 시대를, 한국어를 중심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중언어 다중문화 시대의 교사 역량”을 주제로 코로나 이후의 대면 학술대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 긴 터널 속에서 느낀 소통의 어려움과 답답함은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시대적 배경에 맞는 교사의 역량은 어떤 것인지, 다양한 고민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의된 교사 역량의 지표는 새로운 시기 한국어교사 교육의 바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계자 여러분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원 여러분, 학술대회를 준비하시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임형재 회장님과 임원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학술대회의 알찬 결실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  
장소원

## 축 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4차 추계학술대회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입니다.

「다중언어 다중문화 시대의 교육 역량」을 주제로 뜻깊은 학술 대회가 개최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코로나 상황을 겪고, 3년 만에 개최하는 오프라인 행사라서 더욱 반갑고 의미가 깊으리라 생각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임형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회장님과 귀중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님,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장소원 국립국어원장님, 조형식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장님께 한국어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 주제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환경에 관한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최근 한국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에 다문화가족 자녀 학생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적응이 필요한 이주민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이 점차 다양화에 됨에 따라, 다중문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한국어·한국문화 연구자들이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은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 84개국 244개소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세종학당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임형재 학회장님과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발전과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

## 축사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한껏 무르익는 시기에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4차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강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적 소통의 중심점 역할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의 제34차 국제학술대회를 우리 대학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중언어 다중문화시대의 교사 역량’이라는 주제로 유수의 전문가를 모시고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 분야의 연구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가 급증하는 이 시기에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다중언어와 다중문화 환경에서 이상적인 교수 학습 방법과 교육 정책 등에 대한 고민이 깊는데 학술대회를 통해 학문적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한국어교육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더 많은 연구의 단초가 될 학문적 담론의 교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강은 1990년 한국어교육원을 설립한 이래로 의사소통적 교수법을 기반으로 한 ‘서강 교수법’을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크게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올해부터는 한국어교육원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한국언어문화교육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뜻깊은 학술대회가 서강의 발전에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위해 오랜 기간 애써 오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임형재 회장님,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장  
조형식